

문 21: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

답 21: 하나님의 선택하신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써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 이시요 사람 이시다.

성경적 근거: 빌립보서 2:5-11; 디모데전서 2:5; 요한복음 1:1, 14, 10:30; 갈라디아서 4:4; 로마서 9:5; 골로새서 2:9; 히브리서 7:24-25, 13:8!; 누가복음 1:35

질문 1: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는 누구인가?

질문 2: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는 왜 구속자가 필요한가?

질문 3: 구속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 4: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질문 5: 한 분의 구속주외에 또 다른 구속주가 있는가?

질문 6: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의 타이틀은 무엇인가?

질문 7: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질문 8: 그 구속자는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오셨는가?

질문 9: 그 구속자에게는 몇개의 특수한 성품이 있는가?

질문 10: 그 구속자에게 있는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은 무엇인가?

설명: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악함과 흉악함에 대해 배웠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부터 가장 먼 곳으로 몰아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의해 죄가운데서 죽었으며,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되는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 죄인들을 구하실 구속주를 준비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닿게된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로 남을 수 있는데,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역이라고 이미 공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성품적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하면서도 자신을 배반한 죄인들의 붉은 죄가 흰눈보다 더 희어질수 있도록 만들어 죄인이 아닌 완벽한 의인으로 세워야 한다. 이 것은 절대로 쉬운일이 아니며, 죄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구속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도 구속자를 필요했던 것이다.

그 구속자는 하나님의 성품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뿐 아니라 죄인들의 모든 죄를 말끔이 씻는 역할을 완벽하게 해 낼수 있어야 했다. 그 구속자는 사람이 상상할수 없는 특별한 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사람의 죄를 맡음이 씻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상상 할수없는 특별한 인물이 등장해야 되었던 것인데 그 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다른이도 구속자의 역할을 담당할수 없다. 그 이유를 우리는 밑에서 알게 된다. 예수와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특별한 성품만이 구속자의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의 구속 받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 것이 전혀 틀리지않다. 그러나 완벽한 답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에만 있지않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공의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있다고 설명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만으로도 구속자의 역할을 이해할수 없다. 그러나 이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가를 알게 될 때에 설명이 될 수 있다. 문제를 보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답을 보고 문제를 알게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다. 예수님의 성품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타이틀이 있다. 그 타이틀은 그의 특별한 존재, 위치, 기능을 말해주고 있다. 그 타이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사용되는 헬라어인데 그 것과 동등한 히브리어는 “메시아”이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라 함은 예수는 그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그의 직함으로 그가 메시아 되심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메시아란 무슨 의미인가? 그 것은 “유일하게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 후에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존재, 위치, 기능을 설명해 주는 귀한 타이틀이 된다.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시며 유일한 존재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그가 그의 아버지로 부터 창조를 받았거나 또는 아버지로 부터 그의 존재가 있어진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첫째,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며, 둘째, 법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미 공부했던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를 검토하기 바란다. 이 두가지의 관계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땅에 보내셨는지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의 정체를 묘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상속자의 위치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많은 사람으로 혼돈케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 하나님(성부)이 될 수 있는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한다. 그러나 성경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은 완벽하며 온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 진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자가 될수있다는 것을 이해 할수도 인정 할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상황이 결코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못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다 설명하는 것 과 증거하는 것 과는 다르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라고 한다. 증거는 가능하나 설명은 불가능하다. 증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이지만 설명은 인간의 제한된 생각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증거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체험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전하는데 더 많은 열정을 쏟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완벽하며 온전한 하나님이 되심과 동시에 완벽하며 온전한 인간이 되심을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완벽하며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우린 완벽하게 설명할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을 너무도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중요한것은 그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는 그가 구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며 중요한 사실이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더 사악한 종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바로 다른 어떤 종교도 감히 따라올수 없는 뛰어난 종교임을 증명한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도토리 키 제기와 같다. 얼른보면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모두다 비슷한 비진리의 종교들이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의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그 것은 바로 행위적 “구원”이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분명하게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 특별한 구속자에 의해 구원을 이루는 종교이다. 그 뿐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음을 자초하셨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게 되는데 그 구속사역을 담당할수 있었던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리고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자이다. 무한자가가 유한한 육신을 입고 오신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한다.